

2018년 7월 29일, 제주시 도두1동 이옥선 씨 댁, 이현정 조사.

이옥선(여, 1938년생, 제주시 도두1동)

-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출생, 20대 초반 직업군인인 남편을 따라 약 15년간 육지와 제주도를 오가며 생활하다가 귀향하여 도두동에서 살고 있다.

- 줄거리: 구할망은 어릴 적부터 몽니가 꺾였기 때문에 무쇠석함에 갇혀 바다에 버려졌다. 무쇠석함은 바다에 떠다니다 마침 아이를 갖고 싶어 불공을 드리러 다녀오는 사람들에게 발견된다. 구할망은 인간들에게 포태를 주며 얻어 먹고 살려하지만, 어진 삼승할망과 꽃씨 가꾸기 내기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을 해산시키는 방법을 몰라 죽은 아이들을 차지하는 신이 된다. 삼승할망은 꽃씨 가꾸기 내기에서 번성꽃, 환생꽃을 많이 피워서 인간세상에 포태를 주는 신이 되었다.

[조사자] 삼승할망 이야기는마씨?

[제보자] 건 삼신보살님.

[조사자] 상자에 넣으려 떠내려 왔던 그런 얘기 안 됩니까?

[제보자] 그거는 이제 그 구할망, 나쁜 할망은 구삼승할망은 무쇠설갑에 채완 떠왔던 여자가. 삼신할머니는 워낙 어질어가지고 꽃씨 뿌려가지고 많이 발부리 난 그 할망이 삼신할마님이고.

[조사자] 무사 무쇠설갑을 띄와 불었덴마씨?

[제보자] 그 아주 애길 난 허난, 그 얘기가 아멩해도 아니 좋덴 허난 거 띄웠겠지게. 몽니가 안 좋덴 허난 띄왔인디. 어떻 행 띄운 스정꺼진 모르고, 겐 띄우난 동이용왕 동이물 나민 동드레 갓당. 물 싸민 우트레 춤 들민 갓당. 물 싸민 동더레 갓당 서러레 갓당. 막 동이 갓당 서이 갓당 허멍 허단. 이젠 어떤 애기덜 못 난 수록 드리레 간, 불공 드리레 간 오단 사름덜 만나난. 그 사름안티 그 무쇠설갑을 줏으난

“느 거여, 나 거여.”

“경 말앙. 열루 왕 들엇이믄 갈르겐.”

헨 올안 보난 여자라. 거난 그 여자가게 그 사름네안티 돌려들어네.

“나를 이거 올안 살려 낫이난.”

그냥 내불민 죽을 거난 살려 낫이난 나를 책임정 살려 주렌. 겐 바짝 돌려드
난. 이젠 돌아왔언 오나네. 이젠 삼신할마님은 이제 삼신. 애기 생불 주젠 나온
할머니고. 이거는 곶이 들영 지가 생불허켜. 이젠 삼신할마님은 삼신할마님이 생
불허켜. 생불 이제 애기를 주는 거. 경 헨 ㄷ투난. 게문 경 ㄷ투지를 말고. 꽃씨
를 뿌려서 이제 생인 감상. 저기 저 꽃생인을 불러가지고 꽃씨를 뿌리면 많이 나
는 번성꽃, 환성꽃 그런 거 많이 피는 사름으로 삼신할머니 시기젠.

딱 뿌리난. 삼신할머니가 많이 좋은 걸로 나오더라. 꽃부리도 많이 돌리고 꽃
도 많이 피고. 경 허난 이제 그 할머니가 삼신할망으로 노력사젠 허난. 이제 그
구할망이 막 심술로 막 지가 막 가켄 헤 가난. 거문 느 거문 헤여 보렌. 허난 태
기는 주며는 애길 냅질 못 헤엿어. 거서 조드랭이로도 짜영 나민 죽어불곡. 뭐
일로절로 짜어 봐도 안 뉘난. 이젠 꽃씨를 뿌리기로 헨 뿌련. 삼신할머니가 꽃번
성 막 잎번성, 발번성 허난. 삼신할머님으로 내리셉곡. 이젠 구천구할머니로 애
기 죽영 못 쓰는 거 그거나 초지허렌.

경헨 그 무쇄설갑에 재왓당 허난 그런 들로 보내난 구할망이라. 거난 아흐렛
날 초아흐렛 날 열아흐렛 날 스무아흐렛 날 경헨 노력상 얻어 먹어. 삼신할마니
는 삼일 날, 일뤼 날 경헤여. 초사흘이나 초일뤼나 열사흘이나 열일뤼나 쓰무사
흘이나 쓰무일뤼나. 삼신할머니 빌 때는 경 빌어났어 전에는. 아무 날이나 안 빌
어 애기 빌 때는.

[조사자] 어느 심방한테 들어난마씨?

[제보자] 건 우리 집이 빌러온 심방덜 비는 거 봤지.

[조사자] 계속 심방 허는 거 들영이네 기억하는거파?

[제보자] 어. 구덕에 흥글어 주는 것도 할머니. 삼신할망, 삼신할망이난 할망이 세 개라.
삼신할망, 구덕할망, 업개할망. 업개 애기 보는 할망. 구덕 흥글어 주는 할망. 삼
신 생불 주는 할마님. 거난 삼신이야 삼신.

- 핵심어: 구할망, 삼신할망, 번성꽃(번성꽃), 환성꽃(환생꽃), 꽃씨, 생불, 무쇄설갑(무쇠석함), 구덕할망, 업개할망, 할망(할머니), 삼신, 구덕